

# 테마는 다양하게 분위기는 경건하게

## 일터 복지 '즐거운 법회' 꾸리기

'불교는 좋지만 법회는 싫다'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일반 신행단체와 직장·직능단체들에게 법회 만큼 큰 고민도 드물다. 신행의 근간을 이루는 법회도 요즘엔 특색이 있어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식순에 따라 '그저 그런' 법회에 참석해 본 이들은 다음번 법회 때는 없는 형제까지 만들어 참석을 피하기 일쑤. 그러나 법회 형식을 조금만 바꾸면 '기다려지는 법회'를 만들 수 있다.

### 매번 다른 테마 '즐거움'

'삼귀의례, 찬불가, 입정, 청법가, 법문, 사홍서원, 공지사항...' 매번 똑같은 법회로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스스로 신심을 키울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법회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신심을 증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회 회원들간 어울림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거운 분위기는 법회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적이다. 사경, 참선, 경전 스리차, 레크리에이션, 다도(다담), 집전 습의 등을 적절히 혼합해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거나 한가지 테마를 정해 법회를 개최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법회가 자주 열릴수록 '테마법회'는 진가를 발휘한다.

### 직급 떠나 법우 '기 살리기'

회사내 상하 직급이 업무가 아닌 법회가

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인지상정. 이때 하급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하급직원이 법회 참석을 꺼리는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법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평등한 법우임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간 대화는 경어를 원칙으로 하고, 호칭을 '법우'로 통일한다면 직급의 벽을 어느 정도 허물 수 있다. 여기에 직급이 낮은 회원들의 발언을 권장하거나 집전을 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가미해 하급직원의 기를 살려주면 밝은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다. 회원들의 발심을 위해 법회 참석률이 높거나 능동적으로 법회에 임하는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법사 초청 '법다운 법회'

법회는 부처님법을 배우고 신심을 쌓기 위한 자리다. 따라서 법사를 모시고 법문을 듣는 시간이 생략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반 신행단체와 직장·직능 단체 상당수가 지도법사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맡아줄 법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나 신행단체들은 재가불자들의 모임이므로 신행을 도울 지도법사를 추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도법사가 반드시 스님이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포교 사나 재가법사도 지도법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우리은행 불자회 지도법사 법현 스님(테



법회 형식과 프로그램을 조금만 바꾸어도 재미있고 활기찬 법회를 만들 수 있다. 사진은 집전을 배우고 있는 직장불자들이.

## 사경·다도·집전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참여 유도

### 상하 관계가 아닌 '법우'로 만나는 법회 돼야

고종 사회부장)은 "지도법사가 없거나 법사를 초빙할 수 없을 때는 108배 정진, 경전 독송 등과 같은 대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 관심은 특효약 '우리는 가족'

회원과 회원을 이어주는 끈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은 참석률이 낮은 회원들을 법회로 이끄는 특효약이다. 이 때 한두번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관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것. 그렇다고 한 사람이 전체 회원에게 연락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다. 또 우연히 마주침 때 가벼운 인사 보다 모임 소식을 공유한다면 큰 거부감 없이 참석을 유도할 수 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박현남 간사는 "요즘에는 경전문과 모임 소식을 담은 이메일을 전체 회원에게 매일 발송하는 메일링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추세"라고 소개한다.

### '나도 법회의 주인'

'법회에 참석했다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회원이 있다?' 법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이 주인공이 되어 법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법회를 준비하는 몇몇 집행부를 제외하면 스스로를 법회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법회 준비에서부터 진행, 참여에 이르기까지 회원들 스스로 가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탓이다. 회원들이 능동적으로 법회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인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회인사참가자 전원이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스스로 법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주인의식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임을 느끼게 해줘야 생기기 때문이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우리단체 이사람

하용이

한국은행 불이회장



한국은행 불이회를 이끌고 있는 하용이 회장(54·연수원장·사진). 17년 동안 간사를 맡아오다 올해 회장에 취임한 그는 불이회 발전을 견인해 온 중심인물이다. 불이회는 1985년 금융권 최초로 불자모임을 결성한 이래 20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법회를 열어오는 등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여기에는 법사 초빙을 비롯해 회원 참여 독려하는 등 회장의 노고가 숨어 있었다. "회원들은 2003년 3월 열린 해

권거래소 등 24개의 금융권 불자회가 만들어졌어요. 1992년에는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이하 금불련)가 결성되는 성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0개 불자회가 사라지고, 남은 불자모임 절반 가량이 활동을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불련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일도 회장의 올해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됐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전 분위기를 살려내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불

## 20년된 금융권 최초 모임 금불련 활성화에 큰 일꾼

인사에서 용맹진 수계 법회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각자의

발원을 담아 1000원기도를 일제 했어요. 창립 20주년 기념일인 12월 6일 기도를 회향하고 또다시 우리는 초발심의 마음가짐으로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이회는 김포 선경암 한주 원광 스님,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과 김호성 교수 등으로부터 <법화경> <금강경> <계초심학론> 등 경전공부를 지속하는 한편, 성남 자광원과 의정부 선재동자원을 후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암도 스님, 무진장 스님, 법정 스님, 대행 스님 등 그동안 법회에 모신 법사들의 면면에서도 불이회의 노력이 엿보인다. "한국은행에서 불이회가 창립된 이후 각 은행과 금융결제원, 증

자모임이 없었던 국민은행에 불자회가 만들어질 위 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활동중단 상태인 금융결제원 등이 활동을 재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큰 힘이 되고 있다. 1968년 고교시절 룸바니에 몸을 담고 불교에 입문한 하회장은 불미나, 대학부, 법도회 등을 거쳐 서울 봉은사 봉은불교대학,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 조계종 포교사 등 점차 그 영역을 넓혀왔다. 직급을 떠나 밝은 웃음을 머금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하용이 회장. 그는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10분의 명상과 하심으로 자신을 가다듬을 것을 조언한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고된 업무를 이겨내는 직장생활의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다. 박병영 기자

## 경불회, 팀제 운영체제로 확대

### 1불교회 1복지시설 지원운동 전개도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는 창립 4주년을 맞아 5월 28~29일 평창 웰빙사에서 '국가사회 안정과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1불교회 1복지시설 지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사진).

경찰불자상 정립을 위해 각 불교회마다 인근 복지시설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현직 경찰불자 뿐만 아니라 전직 경찰불자들도 동참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불교회 부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제를 분과위원회로 개편하고, 광역시·도 단위의 지부에 위원을 두는 팀 체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찰조직내 종교동호회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



고 내실있는 운영을 꾀할 방침이다. 한편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한진호 회장의 연임을 의결하는 한편, 수석부회장에 임상태 경찰청 불교회장(경비1과장), 감사에 박규철 서울 동부 상임법사, 박영수 창원 중부 상임법사를 선임했다. 박병영 기자

## 제8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 동화사에서 6월 11~12일

전국의 산악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지를 다진다.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김진관)는 6월 11~12일 대구 동화사에서 대구불교산악회(회장 김강경) 주관으로 제8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를 개최한다.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겸해 열리는 이날 행사는 전국 50여 지부에서 3천여명의 산악인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11일 전야제와 12일 창립기념법회, 어울림 한마당 등으로 진행된다. (053)763-1919

## "5분 법문 설하는 법당 주지 돼라"

### 광주 운불련 창립 13돌 법회서 도영 스님 당부

광주 운불련(회장 유영식)은 지난 5월 29일 창립 13주년을 맞아 불교회관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암스님과 운불련 전국 지회 임원단, 불자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유영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불련은 지난 13년간 지역불자의 발이 되어 불교발전에 힘써왔다"며 "호남불교 중

흥을 위해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가 되어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법회에서 "운불련 불자는 달리는 법당 주지이다"고 전제하고, "달리는 법당"의 주지인 만큼 자아를 법당다운 분위기로 만들고, 불교방송 청취와 불교계 신문을 비치하며, 5분 법문을 준비해 포교에 적극 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급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속조청**

- 산속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속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연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속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산속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 오르지 않는 **산속참죽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신장조율, 영양,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속청미래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산속기침량조청**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산속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송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속조청원**

불경금책

상량식소장용  
복장의식호신용

1) 실물크기(3.5×5cm) - 금강경 24매  
2) 실물크기(5×7cm) - 금강경 24매·천수경 12매·반야심경 8매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 하여 회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요변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고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애 개인 소장용으로 최고급 소형금병풍도 주문제작 한다. 기도정진 재래용품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소법당·스님방·불자님 개인소장용  
합격기원·소원성취·백일기도 재례용

**불경금병풍**

관세음보살도      관세음보살보문품  
2쪽금병풍 크기 (1쪽 - 가로 37cm× 세로 74cm)

목조 건축물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레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방염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대)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평상      1500 - 820 - 400[mm] 가격:150,000      합판가:130,000  
1800 - 1130 - 480[mm] 가격:229,000      합판가:190,000

벤치탁자 set      1500 - 1790 - 750[mm] 가격:420,000      합판가:370,000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에 없고 두꺼운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이 반 영구적이며  
편의 높낮이 부드럽고 댄 운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목상, 기둥, 위양형, 특수색상, 달형, 광택 등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제품.)

동화특수산업 **지구산업**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www.dongwhaind.com

계좌번호: [농협]1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지역대리점 문의